

탄 원 서

수 신 : 울산지방경찰청장

참 조 : 고 정범식 씨 사망사고 재수사팀

발 신 : 김종철(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이상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혜영(노동건강연대, 변리사),
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제 목 : 고 정범식 씨 사망사고에 대한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
1. 늘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울산지방경찰청장 및 관내 경찰관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위 발신인인 우리는 울산소재 현대중공업에서 올해 들어 연이어서 중대재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 내에서 많은 산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우리는 지난 4월 26일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기업인 (주)서문 소속 물량팀에서 일하던 정범식 씨(이하 '고인')가 사망한 점, 사망에 대해서 동부경찰서가 자살로 종결처리한 점, 수사결과에 대한 유족의 반발이 있는 중에 국회가 재수사를 요청한 점, 울산지방경찰청 주도하에 재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진행과정을 유심히 관찰해 왔고 우리 나름대로 자료수집 및 관련 근로자 및 유족에 대한 면담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정황으로 보나 증거로 보나 자살일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특히 최근에 확인된 증거에 의하면, 고인은 사망사고 전에 이미 상당한 탈진상태에 있었고, 이어 초고압의 호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쇳가루에 맞아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몸에 패인 상처의 위치와 모양, 옷과 마스크에 난 흔적, 옷 속에서 발견된 다량의 쇳가루 등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5. 또한 사고현장이 발견되고 2-3분 후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요원이 현장에 와서 현장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부경찰서뿐만 아니라 울산지방경찰청이 이 사진을 확보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6. 이미 제기된 많은 의문점은 울산지방경찰청에서도 모두 아시리라 생각되므로 위에서 두 가지 점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7. 우리는 위의 두 논점을 포함하여 모든 수사가 한 점 의혹이 없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만약 수사결과가 납득할 수 없거나 수사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문제 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8. 부디 엄정한 재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지고, 고인과 유족에게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9. 감사합니다.

2014. 11. 21.

위 발신인 일동